

"星湖僿說"에 나타난 경제지리관 일고찰 : 천지문·만물문을 중심으로

손용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 서론

평생을 두문불출하고 학문에만 전념했던 성호 이익의 학문적 업적은 17-18세기의 실학적인 학문연구를 집대성한 방대한 것이다. 경학에서부터 예설(禮說), 악부(樂府), 언해(諺解), 시문(詩文)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두루 밝았으며, 이는 일문의 제자를 통해 후세의 학문분화 발달의 연원이 되었을 정도였다. 경제실용의 학문에 이맹휴, 성리학 등에 이병휴, 역상과 문장에 이용휴, 성리·예학에 이삼환, 유학 전부분에 박학이었던 이가환, 인문지리에 이중환 등이 성호의 학풍을 계승한 일문이고, 역사의 안정복을 위시한 윤동규, 신후담, 권철신 등은 그의 문인이며,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등은 그의 여풍을 계승한 두드러진 학자들이었다.

성호의 학문의 결정(結晶)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설'(僿說)은 그가 40세 전후부터 40년간 걸쳐서 설경(說經)하는 여가에 생각이 미친 바를 그때 그때 적어 두어 쌓이고 쌓인 것을 팔순에 가까웠을 때 그의 족자(族子)가 등전한 것이다.¹⁾ '사설'은 천지문, 만물문, 인사문, 경사문, 시문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지리관련 내용은 천지문에서 많이 보인다.

오늘날 성호 이익에 대한 타 분야 학자들이 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학 쪽에서는 그에 대해 깊은 연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지리학의 역사가 수십 년에 이른 이즈음에 고전들을 활발히 분석하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해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국학으로서의 인문지리학 위상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첫째, 성호사설을 통해 본 이익의 지리적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피고, 둘째, 어디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가, 셋째, 성호사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익의 지리적 지식과 관심은 당대의 시대상황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넷째, 성호사설에 보이는 이익의 지리지식과 지리관은 오늘날의 그것에 비추어 어떠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 다섯째, 성호사설에 나타난 이익의 지리적 사고 내지 철학에 대한 종합적 조명을 통해 그의 지리관을 어떻게 결론내려 볼 수 있을 것인가

1) 여기서 '사설'이란 '자질구래한 보잘 것 없는 이야기'란 뜻이다.

2) 연구방법

첫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학의 인문지리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문헌연구이다.²⁾ 둘째, 이익의 문헌들 가운데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星湖僿說』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셋째, 성호사설의 번역본(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성호사설, 1978)을 대본으로 한다. 넷째, 성호사설을 번역한 대본을 통해 지리관련 내용들을 추출한다. 다섯째, 현대지리학적 개념과 기준에 입각하여 지리관련 내용으로 재편하고 설명한다. 여섯째, 필요할 경우 마다 한문 원본과의 대조작업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다. 일곱째, 번역 대본의 인용문 가운데 핵심내용들에 대해서는 눈에 잘 띠도록 밑줄로 처리한다. 여덟째, 지리관련 내용들을 종합하여 성호사설에 나타난 지리관에 대한 종합, 결론을 내린다.

3. 연구내용의 요약

영조 39년(1763년) 83세의 고령에 세상을 떠날 때 까지 평생을 두문불출하고 학문에만 전념했던 성호의 업적은 17~18 세기의 이른바 실학적인 학문연구를 집대성한 방대한 것이었다. 경학에서부터 예설(禮說), 악부(樂府), 언해(諺解), 시문(詩文)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의 일문(일문) 제자를 통해서 그 뒤의 학문 분화(分化) 발달의 연원이 되기에 이르렀다.

성호는 현실적인 사회제도에 관한 관심이 컸다. 공자와 맹자를 답론하는 당시의 학자들이 명예와 이익에만 정신이 팔리는 일에 대해 비판하면서, 모름지기 선비는 현실적인 문제에 밝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실학)을 갈고 닦아 실제 정치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학풍을 진작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천지문(天地門) 2백 23항목 중에는 천문과 지리 내용을 망라하고 있지만, 지리에 관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천문학 분야; 천문지, 율력지, 칠성서 등과 중국의 고전 등에 비추어 일월(日月), 성신(星辰), 풍우(風雨), 노상(露霜), 뇌진(雷震), 조석(潮汐) 등에 관해 논하였다. 그리고 역법(曆法)과 태양의 궤도, 세차, 동지, 하지, 춘분, 추분, 일식, 일구(日晷)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별자리의 변화는 병란(兵亂)과 지변(地變), 질역(질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천재지변에는 시운(時運)이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성호는 역사·지리적 고증에 관심을 두어 단군조선, 기자조선의 강역이 요심(遼瀋)지방에 있었다고 추정하고, 기자의 동래설(東來說)을 믿었다. 단군시대를 역사시대로 내세웠으며, 백두산을 동방산맥의 조(祖)로 여기고 백두-태백(태백)-두류(頭流)로 이어지는 한국의 지맥, 수세(水勢)와 이에 따른 인문(人文)까지 논하고 있다.³⁾ 이것들은 성호가 국가 강역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중국을 통해 들어온 한역 서양서적이거나 문물을 통하여 서양의 천문, 역법, 만국전도, 시원경(視遠鏡) 등 서양의 과학지식에 대한 단편적이기는 하나 해박한 견문을 가졌음을 알

2)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한 '성호사설'(1978)을 연구대본으로 하였다.

3) 이밖에도 우리나라 강역문제와 관련되는 지리 고증에 깊은 관심을 보여 삼한, 한사군, 예맥, 옥저, 읍루(挾婁), 패수(溟水), 살수(薩水), 비류수, 울릉도, 안시성, 발해황룡부, 철령위, 윤관비, 가도(假島), 동삼성(東三城), 폐사군(廢四郡), 여진, 대마도경벌 등의 소재와 문제점 등을 거론하였다. 그 밖에 중국의 강하(江河)에 대해서도 약간의 기술이 있다. 한편 술가(術家)의 설을 소개하면서도 '술가의 설은 도시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했고, 비기(秘記) 또한 가소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 있다.⁴⁾ 성호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 지구의 상하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서양인이 처음 알았다 하고, 그 사실을 광야(廣野)에서 멀리 바라보거나 바다에 임해서 수평선을 바라봄으로써 스스로도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⁵⁾

또 서양의 육편방성도(六片方星圖)나 혼천전도(渾天全圖)도 그 규모가 절묘하여 이 역시 중국인이 미치지 못한다고 했고, Manuel Diaz의 천문략(天文略), Adam Schall의 주제군징(主制羣徵, 해부학), Giulio Aleni의 직방외기(職方外記), Verbiest의 곤여도설(坤輿圖說)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Matteo Ricci의 만국전도를 본 후, 동양에 대한 서양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지리적으로 종래 중국 중심의 세계관(=中華觀)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도 서양에는 용미거(龍尾車)라는 색다른 수차(水車)가 있어 수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지도제작에 정간작법(井間作法)이 이용되면 축소 확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⁶⁾

4. 결론

첫째, 과거 선학들의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듯, 성호의 학문적 관심은 다방면에 걸쳐 있었고, 미분화된 상태였다.

둘째, 이러한 성호의 학문체계는 후에 그의 제자 일문들에 의해 분야별로 계승되어 심화된 학문체계를 지니게 된다.

셋째, 17-18세기 성호의 학문적 관심은 경학에 바탕을 둔 실학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천지문을 통해 다방면의 지리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성호는 일찍이 한역서를 통해 서방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선각자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천문과 지리에 대한 관심과 독서, 문헌 연구와 비판적 사고를 통한 역사지리적 고증, 각종 서양지도의 접촉과 이에대한 지각, 특히 지도제작에 있어서의 정간작법(井間作法)의 원리와 중요성을 인식한 것 등은 그의 지리적 사고를 통한 실학적 학문관심을 분명히 해준다.

4) 서양에는 시원경(視遠鏡, 망원경)이 있어, 이로써 일월, 성신의 크기까지 능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일 까하고 호기심을 표시하였다.

5) 그는 특히 아담 샬(Adam Schall)에 의한 서양역법에 감탄하여 일식과 월식에 조금도 오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야말로 역법의 극치로서 중국의 것도 이에 미치지 못하며, 동양 고대의 성인(聖人)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여기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 했다.

6) 천지문에는 그 밖의 귀신(鬼神)에 관하여 그리고 사회 풍속에 관한 몇가지 항목이 들어있기도 하며, 전제(田制) 등에 관련된 약간의 항목이 여기에 포함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학문적으로 분류되지 못한 미분화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남형, 1996, 성호(星湖)의 비평의식-『星湖僿說』의 시문문을 중심으로, 한문학연구의 현황과 방향모색(학술발표)
- 이세현, 1991, 『星湖僿說』에 나타난 이익의 문학론 연구, 백강서수생박사 고회기념특집호, 동방한문학회
- 한혜옥, 1986, 성호(星湖) 이익의 시관-『星湖僿說』의 시문문을 중심으로, 미간행
- 진단학회, 1985, 『星湖僿說』의 종합적 검토, 진단학보, 제13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움, “『星湖僿說』의 종합적 검토”
- 최박광, 1985, 『星湖僿說』의 시론-실학과 문학관의 일단, 제13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움, “『星湖僿說』의 종합적 검토”
- 박성래, 1985, 『星湖僿說』속의 서양과학, 제13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움, “『星湖僿說』의 종합적 검토”
- 유인희, 1985, 『星湖僿說』의 철학사상-정주리학과와의 비교연구, 제13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움, “『星湖僿說』의 종합적 검토”
- 김현수, 2003, 다산 정약용의 經學과 經世觀: 다산 정약용의 국가례 고찰 - 『經世遺表』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 장동희, 2002, 經世遺表를 통해 본 다산의 인사행정 개혁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서울행정 학회
- 팽임, 1994, 『經世遺表』에 나타난 정다산의 실학사상,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 박찬승, 1986, 정약용의 井田制論 고찰-『經世遺表』 <田制>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역사학회
- 鄭奭鍾, 1970, 다산 정약용의 경제사상-그의 田制改革案을 중심으로(李海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 愼鏞廈, 1983, 다산 정약용의 閭田制土地改革思想, 奎章閣 7
- 金容燮, 1975, 18·9世紀의 農業實情과 새로운 農業改革論, 韓國近代農業史研究
- 김석형, 1990,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활동,” 다산학보 11, p.16
- 김영호, 1985, “여유당 전서의 텍스트검토,” 정다산연구의 현황, 민음사; 서울
- 김인열, 1986, “조선후기 향촌사회구조의 변동,” 정다산과 그 시대, 민음사; 서울
- 다산연구회 역주, 1985, 역주 목민심서 Ⅲ, 창작과 비평사;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8,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Ⅱ) 제12권, 강화도호부 편
-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다산시문집 IV
- 민족문화추진회, 1983, 국역다산시문집 V
- 박석무·정해렴 편역, 1996, 다산논설선집
- 박영한, 1977, “청담 이증환의 지리사상에 관한 연구,” 낙산지리 제4호,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지리학과
- 안병식, 1985, “목민심서考異,” 정다산연구의 현황, 민음사; 서울
- 양보경, 1983, “16-17세기 읍지의 편찬배경과 그 성격,” 지리학 제27호, 대한지리학회
- 양보경, 1984, “조선후기 지리서 연구 서설,”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 석천 이찬박사회갑기념논집, 교학사
- 윤사순, 1986, “다산의 생애와 사상,” 철학 25
- 이민수 역, 1995, 아방강역고, 범우사
- 이원순, 1991, “조선실학지식인의 한역서학지리서 이해,”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 이윤갑, 1991,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지배층의 동향,” 한국학 논집 18, 계명대
- 이을호 역, 1975. 목민심서, 현암사
- 임덕순, 1987, “다산 정약용의 지리론 연구,” 지리학논총 제14호
- 임덕순, 1991, “다산 정약용의 지리사상,” 한국의 전통 지리사상,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최성철, 1984, “조선후기 실학의 개혁사상,” 한국학논집 6
- 최영준, 1992, “조선후기 지리학 발달의 배경과 연구전통,” 문화역사지리 제4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최창조, 1991, “한국 풍수사상의 이해를 위하여,”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 홍이섭, “다산의 생애와 학문,”
- 홍이섭, 1959, 『정약용의 정치경제사상연구』, 한국연구도서관; 서울